www.sbsunbo.com

2027 SUNSHINE

Vol. 274
2026.11.15

SB SUNBO NEWS

since 1986

SUNSHINE 2027 | 친환경 기술로 미래를 여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이메일 · sunbo@sbsunbo.com | 대표전화 · 051.261.3454 | 본사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 사 훈 ·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주요소식
위대한 출발을 선언하다
'SB대선 출범식'

회사소식
'OFFSHORE KOREA 2026'
SB선보·SB대선 참가

회사소식
원·하청 대상
'상생 세이프티 물품 지원'

회사소식
일하는 방식의 혁신
'사내 생성형 AI 경진대회'

주요소식

‘SB대선 출범식’ 성료…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한 위대한 출발을 선언하다

10월 29일 SB선보 및 SB대선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 총 191명이 참석한 가운데 ‘SB대선 출범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양사의 뛰어난 역량을 하나로 모아 친환경 해양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통합적 시너지의 출발을 대내외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새로운 사명 ‘SB대선’은 SB선보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더불어, 80년의 깊은 역사를 지닌 지역 중견 조선소 ‘대선’의 이름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두 회사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도약해 나간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출범식은 개회 선언과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회장 축사, 김정태 고문 및 경영진 메시지, 출범 퍼포먼스, 떡케이크 커팅식, 전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금식 회장은 권민철 대표에게 직접 사기를 전달하고 명함 폼보드를 교환하며, 하나 된 SB대선의 성공적인 미래와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최금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대선조선의 80년 역사와 기술력에 SB선보의 도전정신을 더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역사적인 출발을 선언한다”리며, “서로의 경험과 강점을 존중하고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2027년 반드시 흑자 전환을 이뤄내어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SB대선은 이번 출범을 계기로 두 회사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친환경 에너지·기자재·시스템 분야의 종합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SB선보가 축적해 온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FSRU) 시스템, 부유식 발전소, 친환경 연료공급시스템 기술력에 SB대선의 선박 블록 및 선실 제작 인프라를 접목함으로써, 생산 범위를 친환경 플랜트 및 대형 친환경 기자재 영역까지 획기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축사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SB선보㈜ 최금식 회장, SB대선 출범식 축사

사랑하는 SB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선조선의 80년 역사와 기술력에 SB선보의 도전정신과 경영 역량을 더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한 위대한 출발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사를 지켜온 대선조선 임직원 여러분과 협력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님께서는 SB대선의 경영 정상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무보수 고문직을 수락하셨습니다. 풍부한 경륜과 지혜를 재능기부로 기꺼이 나누어 주시겠다는 큰 뜻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반드시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결의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SB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회사의 이름이 바뀌는 날이 아니라,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입니다. SB대선의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에 SB선보의 조선기자재 및 친환경 에너지 역량을 더하면 세계적인 조선 · 해양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하며, 오랜 적자의 역사를 끝내고 2027년 반드시 흑자 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권민철 대표님과 김기수 부사장, 장성기 전무, 이경석 전무, 정태경 전무, 박종배 실장, 유규철 실장, 이승배 실장 등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님들은 책임 있게 실천하고, 임직원 여러분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높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SB대선과 SB선보는 하나의 가족이며, 하나의 운명공동체입니다.

서로의 경험과 강점을 존중하고, 부서와 회사의 벽을 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똘똘 뭉쳐 헤쳐 나갑시다. 우리가 만들 회사는 고객이 신뢰하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며, 임직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회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능력과 저력을 믿습니다. 훗날 오늘을 돌아보며, “2026년 10월 29일, 그날부터 SB대선은 달리졌다. 우리가 하나 되어 마침내 해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합시다.

2027년 흑자 전환!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SB대선과 SB선보, 하나 되어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소식

SB선보·SB대선 'OFFSHORE KOREA 2026' 참가

SB선보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OFFSHORE KOREA 2026(국제해양에너지플랜트산업전)'에 참가해 친환경 해양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SB선보는 SB대선과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양사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차별화된 주요 제품을 대외에 적극 알렸다.

'OFFSHORE KOREA 2026'은 해양·해상에너지, 해양산업, 미래에너지, 조선, 대체연료 등을 핵심 분야로 다루는 국내 대표 산업 전시회다. SB선보와 SB대선은 이 중 미래에너지 및 조선·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해양 산업을 선도할 핵심 제품 라인업을 전시해 관람객과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SB선보는 미래 해양 에너지 시장을 겨냥한 핵심 설비인 '윈드 챌린저(Wind Challenger)'와 'BOG 압축기 시스템(BOG Compressor System)'을 선보였다. 'Wind Challenger'는 풍력을 선박의 보조 추진력으로 전환해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함께 선보인 'BOG Compressor System'은 액화천연가스(LNG) 운항 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압축·처리하는 필수 설비로, SB선보의 독보적인 가스 처리 기술과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역량을 입증해 보였다.

한편 SB대선은 조선 분야 핵심 건조 기술이 집약된 '케미컬 탱커(Chemical Tanker)'를 전시했다. 다양한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케미컬 탱커를 통해 우수한 선박 건조 역량을 강조했으며, SB선보의 선박용 시스템 기술과 결합하여 한층 완성도 높은 공동 부스 전시를 구성했다.

이번 공동 참가는 선박용 핵심 기자재 및 모듈 시스템부터 완성선 건조에 이르는 SB의 통합 사업 역량을 한자리에서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 SB선보와 SB대선은 앞으로도 조선·해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지고, 친환경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밤이면 오순도순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랠 지어 부르겠지

아침특강

제니엘그룹 박인주 회장 특별 강연… SB선보의 미래를 이끌 혜안을 묻다

SB선보는 10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본사 옥상 교육장에서 제니엘그룹 박인주 회장을 초청하여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회사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갈 리더들의 마인드셋을 함양하고, 전 임직원이 올바른 조직 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연은 대상과 목적에 맞춰 총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임원 및 팀장급을 대상으로 '왜 리더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려, 조직 내 리더의 본질적인 역할과 스마트 리더십, 11가지 리더십 원칙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어 둘째 날에는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길'을 강연하며 가치 창출,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력과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인주 회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리더는 단순히 관리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전문성으로 현장을 혁신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스스로 오너십을 가지고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해 최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강연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리더의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되돌아보고, SB선보가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강요약

왜, 리더가 필요한가? - 리더의 자격과 스마트 리더십

스마트 리더십의 핵심

리더는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온톨로지)해 최선의 방향을 도출하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실패를 자산화하는 자기주도적 실행력과 도전·학습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리더의 일하는 방식

업무의 비중은 기획 30%, 준비 20%, 실행 40%, 분석 10%로 배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행 후 성과보상(승진·성과급·학습)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조직도와 역할의 차별화

임원	사업부장	팀장·파트장
장기(3~5년) 관점의 '초격차 전략'수립 및 미래 투자 담당	중기(1~2년) 관점의 수익성 및 부서 간 시너지 조율 담당	단기 현장의 수율 및 품질 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현장 경영자 역할

성공하는 리더의 11가지 원칙

1. 에반젤리스트가 되어라
2. 디테일을 챙겨라
3. 끊임없이 발탁하라
4. 믿고 사랑하고 보여줘라
5.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하라
6. 쿨하게 인정하라
7. 대의와 시명을 펼쳐 보여라
8. 솔직하게 사과하고 모르는 척 넘어가라
9. 문화를 창조하라
10. 성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라
11. 무브먼트를 만들어라

특강요약

훌륭한 리더가 되는 길 - 가치 창출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명확한 비전과 동기 부여

목적(왜, 존재 이유), 목표(무엇을, 시장 점유), 방법(보람과 자기 결정권)을 통해 구성원이 스스로 알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리더는 진솔함, 겸손함, 무사욕(No Greed)의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인재 선발 시 조직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하며, 경청하지 않거나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등은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

책임감과 권한 위임

리더는 자신의 시간을 고부가가치 일에 집중하고, 루틴한 업무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전달해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마음대로 해" 식의 방치는 금물). 긴급한 일에 쫓기지 않도록 평소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학습과 솔선수범

관리자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서 벗어나 질문과 토론을 통해 원인을 찾는 시프트 프린트를 실천하고, '공은 구성원에게, 결과 책임은 경영자에게' 지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기고

극명하게 엇갈리는 원·달러 환율 전망…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협, 재정 위기

지난해 세계 경제의 핵심어는 단연 '도널드 트럼프'였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만을 강조하는 국수주의로 일관해 2차 대전 이후 구축해 온 다자 간 안보 무역 채널을 계속해서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트럼프 이외에 올해는 세계 경제의 핵심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단연 '재정 위기'를 꼽는다. 대부분 위기는 금융에서 발생했지만 재정에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는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 의문을 남겼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국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중국 310%, 일본 270%에 이어 미국도 110%를 넘어섰다.

주된 요인은 권력욕이 강한 통수권자의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 때문이다. 재정지출 성격상 견제 기능이 중시돼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재정 지배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중앙은행을 지배하는 경우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에서 독립성 훼손 문제에 시달렸다.

재정 지배의 궁극적 모습인 재정위기는 어떤 식으로 찾아올 것인가. 케네스 로코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재정이 불안하고 △금리가 높으며 △정치가 마비돼 있고 △충격이 오는데 통수권자가 느끼지 못할 때 재정 위기가 온다는 4단계론을 제시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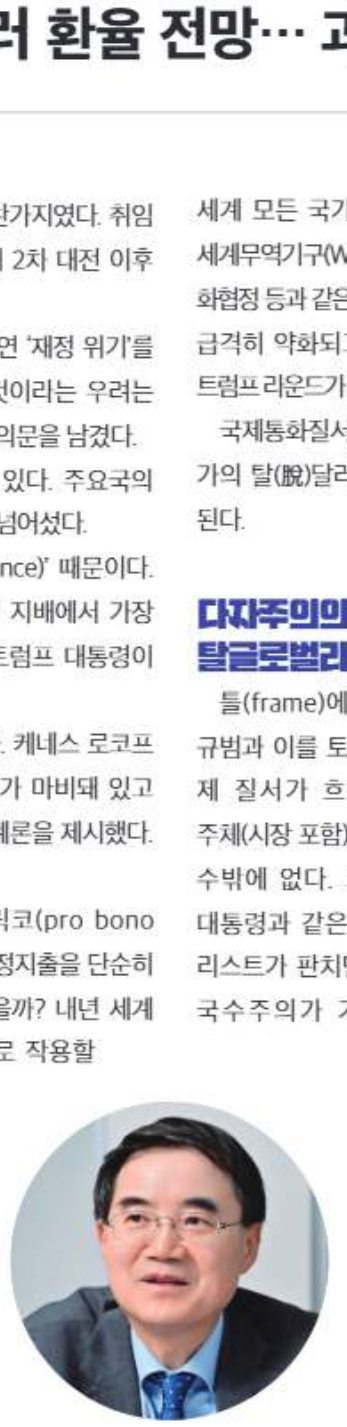
재정 지배에 따른 재정 위기는 통수권자가 '프로 보노 퍼블릭코(pro bono publico-공공선)'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것을 전제로 재정지출을 단순히 줄이는 '긴축'보다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년 세계 경제와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 질서의 전환, 경제학 4.0 시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뉴 앱노멀 시대에 들어섰다. 이 때문에 아담 스미스식 자유방임 고전주의 '경제학 1.0' 시대, 존 메이너드 케인스언식 혼합주의 '경제학 2.0' 시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식 신자유주의 '경제학 3.0' 시대에 이어 '경제학 4.0' 시대로 구분하는 시각도 있다.

경제학 4.0 시대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를 전제로 했던 종전의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현상이다.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과 같은 다자주의 채널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그 대신 트럼프 리운드가 출범했다.

국제통화질서는 미국 이외 국가의 탈(脫)달러화 조짐이 주목된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다자주의의 쇠퇴와 탈글로벌라이제이션

틀(frame)에 해당하는 국제 규범과 이를 토대로 한 세계 경제 질서가 흐트러지면 경제 주체(시장 포함)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인 포퓰리스트가 판치면서 이기주의와 국수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세계화 쇠퇴를 의미하는 탈글로벌라이제이션(de-globalization)이란 신조어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에 트럼프 리운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현상으로 돈로주의가 쇠퇴하더라도 무너진 다자 안보 무역 채널이 쉽게 복원될 수 없다는 점이다. 나토(NATO),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이해관계가 엇갈린 국가 간 합의나 규범은 한번 깨지면 재봉합하기가 어려운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유럽 국가의 정부 지출과 국민 부담



자료 :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세계 상품 교역량 추이



자료 : 세계무역기구(WTO), 한국은행

선보 챗봇

바다 한가운데서 배는 전기와 물을 어디서 얻을까요?

배는 떠다니는 작은 도시예요

큰 배에는 선원 수십 명이 살아요. 불도 켜야 하고, 씻고 밥도 먹어야 해요. 항해 중에는 어디에도 연결할 수 없어서 필요한 건 배 안에서 직접 만들어요.

전기는 배 안 발전기가 만들어요

엔진룸에는 프로펠러를 돌리는 메인 엔진과 별도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가 있어요. 조명, 냉장고, 항해 장비, 각종 펌프까지 모두 이 전기로 움직여요.

물은 바닷물로 만들어요

싣고 갈 수 있는 물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끓여서 증기를 모으고, 그 증기를 식혀서 맑은 물로 만들어요. 이때 엔진이 내는 열을 다시 써서 에너지를 아껴요.

엔진에는 연료와 기름이 계속 필요해요

엔진이 잘 돌아가려면 연료를 알맞은 온도와 압력으로 공급하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해요. 배 안 곳곳의 펌프와 배관, 열교환기가 이 일을 쉬지 않고 해요.

여기서 SB선보가 하는 일!

- 연료 공급, 정제, 펌프, 배관 같은 엔진룸 보조 시스템을 모듈 하나로 만들어요.
- 이게 Tank Top Unit이고, 1993년 F.O Supply Unit부터 시작했어요.
- 공장에서 미리 조립하고 시험한 뒤 조선소에 납품해요.
- 지금까지 누적 176,564세트를 공급했어요.



선보챗봇 한 줄 정리

배 안의 전기와 물은 엔진룸이 만들어요. SB선보는 그 엔진룸이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핵심 설비를 만들어요.

회사소식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SB선보, 원·하청 대상 상생 세이프티 물품 지원

SB선보는 10월 16일, 원·하청 업체들의 현장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 상생 세이프티 물품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지원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협력사 근로자들을 직접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내 재해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내 17개 협력사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보호구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다.

전달된 세이프티 지원 품목은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를 비롯해 보안경, 보안면,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작업복, 그리고 필수 소모품인 정화통(필터)까지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고 안전에 필수적인 장비들로 엄선되었다.

SB선보는 그동안 꾸준히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각도의 소통과 지원을 이어온 바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부산 지역 조선 기자재 기업들과 함께 '부산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격치 완화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든든한 상생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7월 초복 무렵에는 사내외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함께 330통의 수박을 나누는 '상생복데이'를 열어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SB선보는 앞으로도 협력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상식

현장의 안전 신호등! 색상으로 읽는 '안전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서는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작업 현장 곳곳에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 곳곳에 붙어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각 색상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사실! 직관적인 그림과 색상으로 위험 상황을 한눈에 알려주는 안전보건표지. 색상별 의미를 알아보고 안전 일터를 함께 만들어 보자.

금지의 색 "빨강"
"위험! 이 행동은 절대 금지!"



차량통행 금지
운반기기 및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



물체이동 금지
정돈된 상태이거나 움직이면 안 되는 물체 보존 장소

경고의 색 "노랑"
"주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세요!"



고압전기 경고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매달린 물체 경고
머리 위에 크레인 등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지시의 색 "파랑"
"안전!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세요!"



안전모 착용
안전모 착용이 필요한 장소



보안경 착용
보안경 착용이 필요한 장소

안내의 색 "초록"
"비상! 구호 및 대피 방향을 확인하세요!"



응급구호 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비상구
비상출입구

HSE

"안전이 곧 최고의 경쟁력" SB선보, 무사고 기원제 실시

SB선보는 10월 19일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사고와 무재해를 염원하는 하반기 안전기원제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기원제는 각 사업장별로 정성을 다해 제상을 마련하고, 참석한 임직원들이 함께 절을 올리며 현장의 안전 사고 예방과 모든 구성원의 건강 및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

SB선보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인 안전기원제를 개최하여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 최우선'을 핵심 가치로 삼아 모든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다대1공장



다대2공장



구평공장



대불공장



감해공장



영암공장

선보TV

조선(朝鮮)에서 조선(造船)으로, 이야기로 잇는 선보의 정신

SB선보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업의 뿌리와 도전 정신을 고풍스러운 옛이야기로 풀어낸 특별 영상 '선보설화'를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조선시대에 조선기자재 기업 선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신선한 상상력에서 출발했다. 나라 이름인 '조선(朝鮮)'과 첨단 해양 산업을 뜻하는 '조선(造船)'의 발음이 같다는 점에 착안해, 선보가 수십 년간 지켜온 개척과 혁신의 정신을 전통 설화의 형식으로 재해석했다.

영상 속 주인공인 '항로지기 선보'는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도 남들보다 먼저 길을 개척하고, 동료들과 함께 헤쳐 나가는 인물을 상징한다. 이는 과거의 항해에서 오늘날 친환경 기술로 'Sailing Green'의 미래를 열어가는 SB선보 임직원들의 발자취와 오버랩되며 깊은 울림을 전한다.

주요줄거리

#출항을 멈춘 항구

옛날 옛적, 돛을 올리고 노를 준비했으나 어쩐지 배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어느 항구가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가득한 사람들 앞에 의문의 인물 '항로지기 선보'가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는 당장 배를 밀어내는 대신, 부는 바람과 물길의 흐름,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차분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거친 바다와 마주하다

마침내 나아갈 길을 찾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다가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거친 파도에 겁을 먹고 "차리리 돌아가자"며 만류하는 사람들 사이로, 항로지기가 고요하지만 묵직한 한마디를 건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오."









과연 항로지기 선보는 시련을 딛고 사람들과 함께 거친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그 감동적인 결말은 SB선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 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선보Family

손끝으로 전해진 짜릿한 승부! 10월 한마음대회 '핑거 펀치' 개최

10월 28일 점심시간, 본사 옥상 스마트라운지에서 임직원들의 뜨거운 열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찬 '10월 한마음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달의 경기 종목은 손끝의 미세한 힘과 순간 집중력이 승부를 가르는 미니 게임 '핑거 펀치(Finger Punch)'. 미니 펀치 기계에 손가락을 튕겨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스마트라운지는 선수들의 진지한 표정과 이를 응원하는 선보Family들의 열기로 금세 달아올랐다.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노하우로 손가락을 장전하며 차례로 펀치 기계를 타격했고, 점수판에 고득점이 찍힐 때마다 현장에서는 환호와 아쉬움의 탄성이 교차했다.

바쁜 업무 일상 속 짧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열린 이번 한마음대회는 임직원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본사



호남



상식

크고 예쁘면 더 맛있을까? 실패 없는 가을철 과일 고르기!

가을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는 대표 과일 사과·배·단감·귤! 겉모습만 보고 골랐다가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 가을엔 '진짜 맛있는 과일'의 기준을 확인해 보자!

사과 | 색과 향, 그리고 단단함을 확인하세요



Good

전체적으로 색이 고르게 들고, 은은한 향이 나며, 잡았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것



Bad

과육이 물렁하거나 표면에 상처가 있는 사과
의외의 사실! 모양이 조금 비뚤어졌다고 해서 맛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 | 꼭지 반대편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Good

표면에 상처가 없고 껍질이 매끈하며 맑은 느낌을 주는 배



Bad

꼭지 반대편(꽃받침 부위)에 미세한 검은 균열이 있거나 껍질이 푸글푸글한 배

단감 | 꼭지가 틈 없이 착! 과육은 단단하게



Good

꼭지와 과실 사이의 틈새가 없고, 전체적인 색이 고르며 질감이 단단한 것



Bad

표면에 얼룩이나 상처가 있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물러지는 단감

귤 | 크기보다는 "얇은 껍질"과 "묵직함"에 주목!



Good

껍질이 얇고 과육과 밀착되어 단단하며, 크기에 비해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귤



Bad

껍질이 과육에서 들떠 지나치게 푹신하거나 이미 물러진 귤

선보Family

SB선보 대불공장, '대불산단 조선업 어울림 한마당' 참가

SB선보 대불공장은 10월 18일 대불종합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불산단 조선업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가해 지역 사회 및 동료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함께 만드는 K-조선, 희망이 넘치는 전남광주'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불산단 내 조선업 종사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유대를 다지고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개막식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이름 불러주기 기념식, 산업안전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SB선보를 대표해 내국인 임직원 3명(서형철, 김현태, 김효희)과 외국인 근로자 3명(수산타, 티완카, 마두링가) 등 총 6명의 팀원이 한마음으로 뭉쳐 회사별 축구 승부차기 대회에 출전했다. 국적과 언어의 벽을 넘어 하나의 팀으로서 호흡을 맞춘 출전진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현장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행사장 주변에는 의료·안전 부스를 비롯해 문화 예술, 전통놀이, K-미식체험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어, 다채로운 문화를 교류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SB선보는 앞으로도 내·외국인 임직원이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건강한 일터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선보 엔젤파트너스

선보엔젤파트너스, 나눔으로 기념하다… 초록우산과 함께한 창립 10주년

아이들과 함께한 18주년 저녁

선보엔젤파트너스가 2016년 2월 설립 이후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10월 28일 임직원이 함께하는 기념의 하루를 보냈다. 기념식 대신 지역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하는 나눔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받은 관심과 응원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다음 10년을 시작하자는 취지다.

이날 저녁 연제구 '고기와집'에는 총 33명이 모였다. 선보엔젤파트너스 임직원 11명, 초록우산 연계 센터 학생 15명, 센터 인솔자 4명, 초록우산 직원 3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함께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고기가 구워지고 이야기가 오가면서 금세 웃음꽃을 피웠다. 임직원들은 아이들 옆자리에 앉아 고기를 굽고 학교생활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아이들 15명에게 모자를, 센터 인솔자와 초록우산 직원 7명에게는 쿠키 세트를 선물로 전했다. 평소 아이들 곁을 지키는 인솔자와 초록우산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준비한 선물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임직원은 "10주년을 우리끼리 축하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함께해서 더 의미 있었다"며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오히려 힘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께 그린 18년, 12조각의 그림

저녁 나눔에 앞서 오후에는 임직원들이 수영구 '뜨리미갤러리'에 모여 10주년 기념 그림을 함께 완성했다. 그림 1점을 12조각으로 나눠 6호 캔버스 12개에 각자 채색한 뒤, 가로 4개, 세로 3개로 이어 붙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참석 인원은 9명이었지만 12조각을 그대로 살려 남은 3조각은 다 함께 나눠 칠했다. 완성된 작품은 사무실에 걸어 10주년의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사람을 남기는 회사, 다음 18년을 향해

최영찬, 오종훈 대표는 기념 메시지를 통해 지난 10년간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대표는 소설 '상도'에 나오는 거상 임상옥의 '상즉인 인즉상', 장사는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최금식 회장님의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회사'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사, 포트폴리오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깊은 신뢰와 신용을 주고, 그 신뢰를 쌓아가며 더 크게 성장하는 10년을 만들어 가겠다"며 "임직원들도 함께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이번 10주년을 계기로 구성원 간의 유대를 다지는 한편, 지역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그림그리기


모자선물


점심식사



초록우산

SUNBO ANGEL PARTNERS × 초록우산


카페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아름다운 이 밤에

회사소식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열다” 사내 생성형 AI 경진대회 성료

SB선보는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2026년 사내 생성형 AI 활용 경진대회’ 우수 사례 발표회를 10월 30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경진대회는 총 9명의 선보Family가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개발한 혁신적인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 사례를 차례로 발표했다. 단순한 툴 사용을 넘어, 엑셀 수작업과 반복 업무로 소요되던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현장의 실질적인 페인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서류 심사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한 우수 사례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선 효과성, 현업 적용 가능성, 범용성 및 확장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열띤 경쟁 끝에 1등 수상은 엑셀 수작업에 의존하던 6개월 치 중장기 작업 부하 분석과 정반 배치 시뮬레이션을 단 한 번의 파일 업로드로 혁신한 기획팀 이혜원 선임이 차지했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임직원들은 생성형 AI가 단순한 검색 도구를 넘어 실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SB선보는 앞으로도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업무 정착과 전사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AI 경진대회

[AI 경진대회 대상 수상작] “수천 번 엑셀 클릭을 한 번의 파일 업로드로!” - 기획팀 이혜원 선임

1. 기획배경

100% 엑셀 수작업의 한계

6개월 치 중장기 작업 부하(LOAD) 분석부터 일정 변경에 따른 재배치까지 모든 과정을 수작업에 의존해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었습니다.

또한 납기 변경이나 긴급 작업 발생 시 엑셀 수식과 도면을 반복 수정해야 했고, 대용량 데이터로 인한 시스템 버벅임과 휴먼 에러 발생 위험이 컸습니다.

2. 개발 및 AI 활용 방식

생성형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계산과 시뮬레이션은 AI가 수행하고, 최종 판단과 통제권은 담당자가 쥐는 현장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데이터 파싱(JSON 변환), 최적화 로직 설계(정반 중복 방지, 착수일 우선, 부하 균등), 웹 UI(드래그 앤 드롭 간트 차트) 구현까지 단계별 프롬프트를 통해 전문 개발자 없이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3. 주요 기능 및 성과

편리한 데이터 업로드 & A/B 대안 자동 생성

ERP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착수일 우선 대안(A)과 작업반 부하 균등 대안(B)을 즉시 도출합니다. 정반·인력 가동률, 납기 임박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확정된 바 차트가 실제 공장 도면에 자동으로 연동·배치됩

획기적인 리드타임 단축

기존 수작업으로 3.5일이 소요되던 작업 과정을 30분 이내로 단축하여 약 98%의 업무 시간 절감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주요개선결과

Before



공정 일정에 따라 정반 배치 시뮬레이션 수작업

After



정반 및 작업반 배치 우선 순위 규칙에 따라 바 차트 생성

Before



정반 배치에 따라 공장 도면도에 데이터 배치 수작업

After



확정된 바 차트가 실제 공장 도면에 자동 매핑

AI 경진대회 결과

구분	수상자	포상
대상	기획팀 이혜원 선임	50만원
최우수상	영크크(최성문·남정화 선임, 박선우·김동영 사원)	30만원
우수상	HSE(김태웅 수석, 배상준 선임, 최재훈 사원)	20만원
장려상	미래전략팀 박준성 선임	10만원
	전산개발팀 박성우 선임	

AI경진대회는 2027년 1월에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대회에도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보Family

17년 차 러너의 선한 영향력, PCS 생산팀 박상민 선임의 푸른 일상

최근 지역 방송(KBS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의 러닝 크루 조명 코너에 출연해 주목받은 김해공장 PCS생산팀 박상민 선임. 화면 속 거침없는 질주 뒤에는, 일상 속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온 든든한 선보Family의 모습이 담겨 있다.

박상민 선임은 작년까지 약 30년간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를 마친 뒤 SB선보에 합류한 17년 차 베테랑 러너다. 파병 시절 함정 내 러닝머신에서 시작된 달리기는 2020년 출퇴근길 레이스로 이어졌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 주말마다 40㎞ 마리톤 트레이닝을 소화하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박 선임의 발걸음은 개인의 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 속 환경 정화 활동으로 이어진다. 2021년 SNS를 통해 플로깅(Plogging.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일)을 접한 이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선보Family의 일원으로서 평소 한 달에 2~3회 정도 점심시간을 틈타 개인적으로 플로깅 활동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출퇴근길과 산책로를 달리며 줍기 시작한 담배꽁초가 지난 3년간 5만 개가 넘을 정도로, 작은 실천을 통해 일터 주변의 환경을 묵묵히 가꾸어 나가고 있다.

이른 새벽의 고강도 러닝부터 점심시간을 쪼개 플로깅까지 실천하는 박상민 선임. 그의 건강하고 성실한 발걸음은 묵묵히 주변을 돌아보는 선보Family의 따뜻한 가치를 일상 속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다.







자료제공: 유튜브 'KBS창원'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캡처

상식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가을·겨울 별자리

가을밤의 페가수스부터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오리온과 황소자리까지. 계절이 바뀌는 밤하늘에는 저마다의 깊은 이야기를 품은 별자리들이 반짝인다. 밤하늘의 별 모양을 찾는 즐거움에 흥미로운 신화 한 편을 더해, 가을과 겨울의 별자리를 만나보자.



가을 | 페가수스자리

"날개 달린 천마(天馬)가 하늘로 올라간 사연은?"

숨은 신화

신화 속 페가수스는 영웅 벨레로폰과 힘을 합쳐 괴물 키메라를 물리친 날개 달린 말이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한 벨레로폰이 신들의 세계까지 올라가려 하자, 제우스가 그를 땅으로 떨어뜨렸고 페가수스만 하늘에 남아 별자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별자리 찾기 포인트

페가수스의 몸통에 해당하는 거대한 '가을의 대사각형'을 먼저 찾아보자.



겨울 | 오리온자리

"밤하늘에 영원히 남은 슬픈 사냥꾼의 전설"

숨은 신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오빠 아폴론의 계략에 속아, 바다 멀리 떠 있던 오리온을 과녁으로 착각해 활로 쏘았다. 뒤늦게 사실을 알고 슬퍼한 아르테미스를 위해 제우스가 오리온을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

별자리 찾기 포인트

오리온의 허리띠처럼 나란히 일렬로 놓인 '세 개의 별(삼태성)'이 가장 좋은 이정표.



겨울 | 황소자리

"눈부신 흰 황소의 정체가 제우스라고?!"

숨은 신화

아름다운 공주 에우로파에게 반한 신들의 왕 제우스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눈부시게 흰 황소로 변신한다. 에우로파가 호기심에 황소의 등에 올라타자마자 바다를 건너 크레타섬으로 달아났고, 이때 제우스가 변신했던 황소의 모습이 밤하늘에 새겨졌다고 한다.

별자리 찾기 포인트

뚜렷한 'V자' 모양의 얼굴과 붉게 빛나는 눈에 해당하는 1등성 '알데바란'을 찾기.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EVENT 결과 뉴스레터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세요!

<SUNBO NEWS> 10월호 '뉴스레터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세요!' 퀴즈 이벤트에 69명의 선보Family가 응모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등 **치킨교환권 :** 플랜트품질팀 박성환 선임
2등 **햄버거세트 교환권 :** 미래연구팀 김지상 책임, 설계1팀 고지석 책임
3등 **커피 교환권 :** 설계8팀 강지혜 선임, EM팀 김민진 선임, 기계의장개발2팀 전성민 선임, ESG소통팀 김채안 인턴, 전계장개발팀 김광현 사원



추첨 진행
펭선이

EVENT 절대 색감 테스트! SB선보의 컬러를 맞혀라!

객관식

푸른 바다를 향해 힘차게 항해하는 SB선보! 우리 회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메인 컬러 'SB SUNBO Heritage Blue'는 어떤 색깔인지 맞춰주세요!



1 2 3
4 5 6

답 :

부서 : 성명 :

▶ 장기근속자 포상 공고

	성명 및 직책	소속	입사일
구평공장	오창배 책임	설계6팀	2006.11.13(20주년)
대불공장	김태경 책임	대불생산관리1팀	2006.11.13(20주년)
김해공장	김성화 사원	광두산업	2021.11.04(5주년)

• 총괄 편집 이세영 수석, 이수지 선임, 김채안 인턴사원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 총무, 행사, HSE 심재영 선임, 배상준 선임
• 제작 미디어줌 (Tel. 051. 623. 1906)

생일축하합니다 ※ 양력 변환일

다대1공장
박성호(11.2) 고중현(11.16) 반유선(11.22)
박웅기(11.2) 박선영(11.18) 김수민(11.25)
김희태(11.6) 신유철(11.18) 강민구(11.26)
문해기(11.6) 심재영(11.18) 박주호(11.26)
권다정(11.9) 정원진(11.18) 박주홍(11.26)
선보 엔젤(11.11) 강영한(11.19) 탄 루안(11.26)
이화진(11.15) 송영재(11.19)
장호길(11.15) 캐릴로 캐싱랑(11.20)

다대2공장
박재용(11.2) 양정수(11.17)
딘 상(11.16) 제 리(11.20)

구평공장
남정화(11.3) 방영봉(11.14) 성기욱(11.24)
루옹더빈(11.5) 박재호(11.15) 또 완(11.27)
차동현(11.5) 박기태(11.19) 랑체타(11.27)
박상현(11.6) 이창주(11.21) 홍 표(11.28)
장세송(11.6) 손대석(11.22)
김 술(11.14) 반 림(11.23)

대불공장
이현우(11.2) 박승은(11.20) 후이콴(11.26)
조만형(11.3) 김창문(11.24) 이운철(11.27)
이진욱(11.4) 이영호(11.24) 김대근(11.28)
양병철(11.17) 올 빈(11.25)
공영만(11.20) 람(11.26)

김해공장
권용관(11.2) 김민정(11.18) 박재호(11.27)
이상희(11.8) 야 신(11.20)
동(11.13) 정인길(11.25)

영암공장
산티나(11.1) 권성진(11.15) 박수동(11.29)
경충수(11.11) 아시시(11.21)

입사기념일

다대1공장
강영한(11.1) 김나래(11.4) 윤상득(11.18)
권다정(11.1) 김광남(11.4) 박성우(11.20)
김대연(11.1) 월 햄(11.9) 우지예(11.20)
레이마크(11.1) 유무성(11.9) 한지혜(11.20)
이종필(11.1) 최현진(11.11) 정원진(11.22)
이현수(11.1) 강병기(11.17) 이경진(11.27)
장봉수(11.1) 김자영(11.18) 홍봉걸(11.28)
정재훈(11.1) 김재원(11.18) 김광수(11.29)

다대2공장
김분점(11.20) 윤명택(11.20) 사 티(11.23)
박우성(11.20) 루 삭(11.23) 전형주(11.26)

구평공장
방영봉(11.1) 김학중(11.15) 제구원(11.19)
보신꿍(11.1) 손정학(11.15) 당딘튀(11.20)
정민우(11.1) 김덕원(11.17) 이상훈(11.21)
박상현(11.3) 박성현(11.17) 조 니(11.21)
장정현(11.5) K알리코블(11.17) 시위낫(11.23)
최하나(11.5) 아르넬(11.18) 페 닌(11.23)
류시헌(11.6) 최찬억(11.18) 염선근(11.27)
박재호(11.6) 김왕곤(11.19) 박희동(11.28)
신용화(11.6) 박상호(11.19) 이효주(11.29)
오창배(11.13) 박찬열(11.19) 황동욱(11.29)
손대석(11.14) 이윤기(11.19)

대불공장
문화성(11.4) 이승준(11.10) 천희선(11.17)
강용길(11.6) 이용호(11.10) 수랑카(11.19)
권대영(11.10) 이운철(11.10) 정민주(11.20)
김명진(11.10) 장오열(11.10) 한기현(11.20)
신준원(11.10) 송덕(11.12) 스리말(11.25)
에클(11.10) 김태경(11.13) 김주범(11.28)
올빈(11.10) 양병철(11.14)

김해공장
권희정(11.1) 자 란(11.1) 안락균(11.14)
김민정(11.1) 짐(11.1) 양(11.18)
김진만(11.1) 쾅(11.1) 베라윳(11.23)
김진화(11.1) 퀴 롱(11.1) 암포른(11.23)
동(11.1) 타나곤(11.1) 왓챠뉴(11.23)
배승용(11.1) 휘(11.1) 포른위(11.23)
심용수(11.1) 김성화(11.4) 산토스(11.30)
아크담존(11.1) 안 나(11.11)

영암공장
우태자(11.1) 박상환(11.12) 박상부(11.14)